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콜롬비아

Republic of Colombia

2022년 7월 11일 | 조사역(G3) 정동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콜롬비아

산타페데보고타



일반개황

면적 1,139천 km ² 	인구 5,161만 명 (2022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GDP 3,513억 달러 (2022 ^f) 	1인당 GDP 6,807달러 (2022 ^f) 	통화단위 Peso (Ps) 	환율(U\$기준) 3,973.50 (2022 ^f) 

□ 콜롬비아는 남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하여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남미 내 인구 3위 및 GDP 4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음. 또한, 원유, 석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임.

□ 원자재 위주의 수출과 완성품 위주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불균형적인 교역구조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어 있으나, 이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과 재외국민들의 송금 유입으로 보전함.

□ 2022년 6월 좌파 게릴라 출신의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50.4%의 지지율로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였으며, 8월에 신임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임. 페트로 당선인은 연금 개혁, 채굴 산업 축소, 부유층 증세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우파 행정부가 그간 해내지 못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밝힘.

□ 대내적으로는 반군단체 잔당의 활동에 따른 치안 불안과 인권 탄압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경제·군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베네수엘라와는 난민 문제 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3. 10 수교 (북한과는 1988. 10. 24)

주요협정 문화협정('76), 사증면제각서교환('81), 과학·기술협정('82), 무역협정('8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0), 이중과세방지협약('14), 자유무역협정('16), 운전면허상호인정·교환협정('18)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1,143,075	593,418	898,174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화학제품
수입	718,214	683,976	704,076	커피, 광물,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2. 3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60건, 337,923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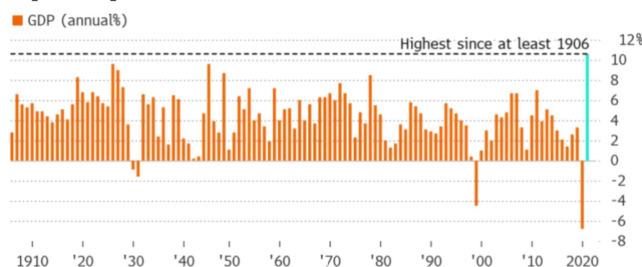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제성장률	2.6	3.2	-7.0	10.6	5.8
소비자물가상승률	3.2	3.5	2.5	3.5	7.7
재정수지/GDP	-4.7	-3.5	-7.0	-6.8	-4.6

자료: IMF, EIU

2021년 경제성장률은 1906년 이후 가장 높은 10.6% 기록 추정

- 2021년 콜롬비아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 해소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회복, 주요 수출품인 원유, 석탄, 커피 등의 가격 상승, 전년 대비 기저 효과 등에 힘입어 1906년 이후 가장 높은 10.6%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음.
- IMF(2022. 4월)에 따르면, 콜롬비아 경제의 빠른 회복은 특히 경제활동 재개, 보복 소비,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 증가, 공공지출 증가 등이 함께 작용하여 민간소비 지표가 개선된 덕분임.
- 2022년에는 견조한 가계소비 회복세와 원자재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소비자물가 상승세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어 전년(10.6%)보다 제한된 5.8%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콜롬비아 경제는 내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전분기 대비 1%)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음. 부문별로는 문화·오락 서비스업(35.7%), 정보통신업(20.6%), 도소매업(15.3%) 등이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 농업(-2.5%)과 금융 및 보험업(-3.2%)은 비교적 부진하였음.
- 중기적 관점에서는 5G 인프라 사업 계획, '국가개발계획 2018-2022',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약속(Compromiso por el futuro de Colombia)' 정책 등에 따른 투자 성과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3.5% 수준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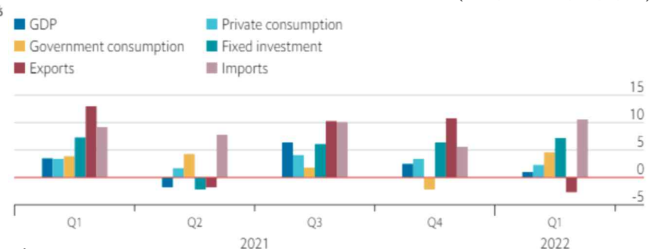
[그림 1] 1906년 이후 콜롬비아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DANE, BanRep, Bloomberg

[그림 2] 콜롬비아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분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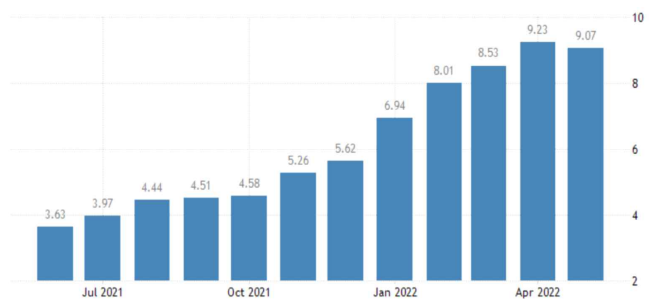
자료: DANE, EIU

국내경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를 다소 상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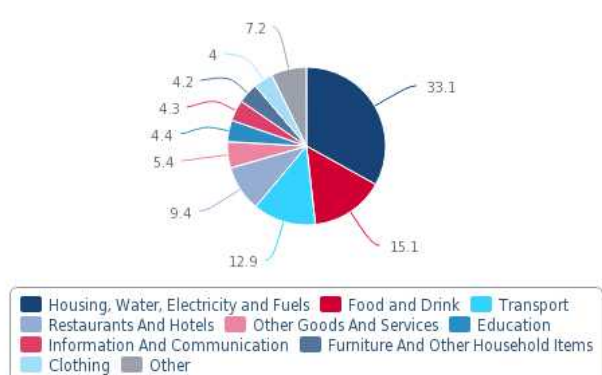
- 2018~21년 콜롬비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기준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3±1%) 내에 머무르며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활동 재개,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 추세가 심화되었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다소 상회하고 있음.
-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9.2% 상승하여 200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부문별로는 음식·비주류 음료(26.2%), 외식·숙박(14.4%), 가구(11.8%), 교통(7.7%) 등이 이를 견인한 반면, 정보통신(-10.0%)은 비대면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상승 추세에 역행하였음.
- EIU(2022. 6월)에 따르면, 콜롬비아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조는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이에 따른 정책효과는 2023년 초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단기적 관점에서 견조한 소비자 수요와 높은 수준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어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 연평균 7.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2021년 9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총 6회, 1.75% → 6%)을 단행하였음. 중앙은행 이사회의 로베르토 스타이너 위원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며, 향후 2년 안에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내에 안착할 것이라 예상함.
- 한편, 콜롬비아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33.1%)이며, 음식·비주류 음료(15.1%), 교통(12.9%), 외식·숙박(9.4%) 순으로 그 뒤를 이음. 이는 콜롬비아 경제가 전기 및 식료품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에 취약함을 나타냄.
- Fitch Solutions(2022. 4월)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에 따른 건조한 기후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취약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콜롬비아 월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DANE, Trading Economics

[그림 4] 콜롬비아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 및 가중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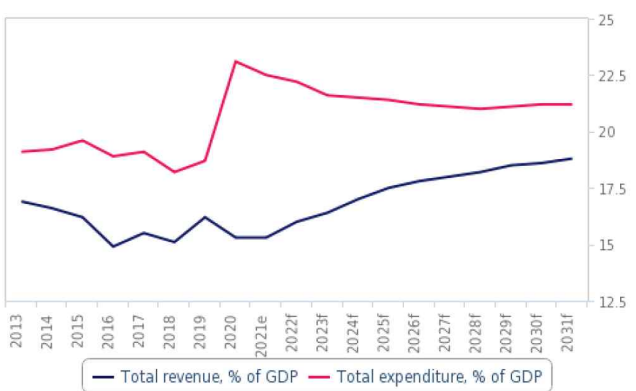
자료: DANE, Fitch Solutions. 2021년 1월 기준

국내경제

경기 회복, 사회투자법 실시 등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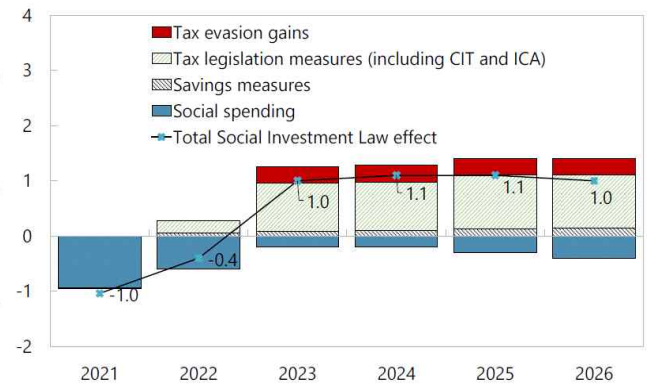
- 2021년 콜롬비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6.8%로,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21.1% 증가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따른 상품수입액 증가로 인한 관세수입 증대 등으로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22.6% 증가하여 전년(-7.0%) 대비 소폭 개선된 성과를 보임.
- 2021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8.2%로 전년(-7.8%) 대비 악화되었으나, 이는 콜롬비아 재무부의 중기재정지출계획(MTFF 2021) 목표치(-8.6%) 이내임. 또한, 재무부가 2021년 정부 예산안 규모(332조 페소) 중 약 22%를 공적채무 감축 관련 정책에 배정하는 등 노력을 이어온 결과, 2021년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64.6%로 전년(65.7%) 대비 감소하였음.
- 202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판매수입(oil revenue) 증가,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6.8%)보다 개선된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IMF(2022. 4월)에 따르면 2021년 9월 승인된 사회투자법의 시행으로 2023년부터 연평균 GDP 대비 1.1% 상당의 재정수지 개선이 기대됨.
- EIU(2022. 6월)에 따르면 사회투자법은 정부 재정에 단기적인 안정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나, 조세 기반 다각화, 공공 부문 합리화 등 중장기적 차원의 재정건전화 정책은 정치적 반대와 길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향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그러나 총생산 회복, 최근 법인세 인상(31% → 35%) 등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국제유가 회복세 지속 등을 바탕으로 콜롬비아의 재정수지는 2023~26년 평균 GDP 대비 -4.1%의 적자를 시현하며 지속가능한 경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콜롬비아 GDP 대비 중앙정부 수입지출 비중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BanRep, Fitch Solutions

[그림 6] 사회투자법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효과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 상 수 지	-14,041	-14,808	-9,207	-17,833	-14,892
경상수지/GDP	-4.2	-4.6	-3.4	-5.7	-4.2
상 품 수 지	-6,394	-9,863	-8,870	-13,984	-11,000
상 품 수 출	42,993	40,656	32,309	42,735	54,205
상 품 수 입	49,387	50,518	41,179	56,719	65,204
외 환 보 유 액	46,087	50,528	56,643	53,469	57,411
총 외 채	154,962	161,988	177,320	189,485	204,026
총외채잔액/GDP	46.4	50.2	65.6	60.3	58.1
D.S.R.	35.8	35.4	48.8	39.2	29.6

자료: IMF, EIU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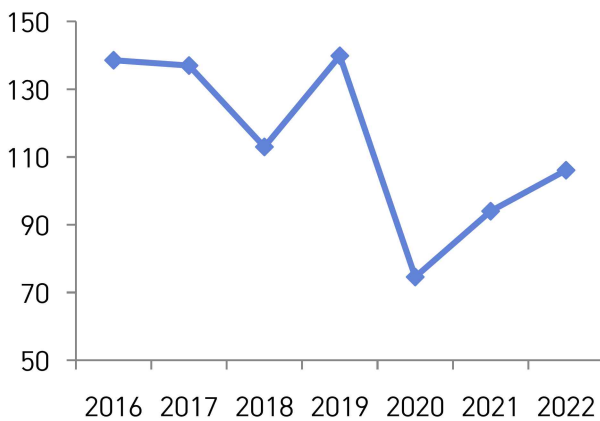
- 콜롬비아 경제는 전통적으로 원유 등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내구소비재 등 완제품을 수입하는 불균형적인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상태에 놓여 있음.
- 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 해소 및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상품수입이 전년 대비 37.7%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3.4%) 대비 악화된 -5.7%를 기록하였음.
- 2022년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원자재 국제 가격 급등으로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석탄, 커피 등의 상품수출액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상품수입액 증가가 이를 상쇄하여 연말까지 110억 달러 규모의 상품수지 적자가 전망됨. 다만, 이는 전년(140억 달러)보다 27.1% 개선된 수치임.
- 2022년 4월 상품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2% 성장한 54.2억 달러로 2014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특히 연료·광물(165.6%) 부문의 성장이 이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상품수지 개선과는 별도로 내수 회복세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이익·배당 송금 증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 감소 등에 따라 2022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4%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 본원소득수지(억 달러, EIU) : -114('18) → -97('19) → -48('20) → -81('21) → -92('22^f)

대외거래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증가 전망, 대외적 위험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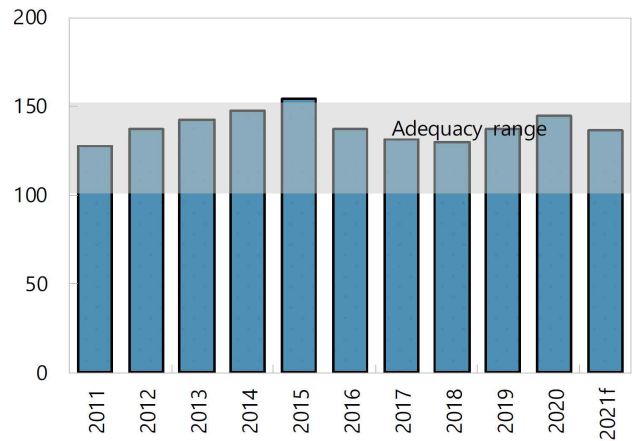
- 콜롬비아는 1990년대 경제자유화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FDI 유입으로 상쇄해온 국가임.
- UNCTAD(2022. 6월)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대대적인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콜롬비아의 FDI 유입액은 전년(140억 달러) 대비 46.7% 감소한 7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94억 달러로 회복되면서 178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일부 보완하였음.
- 그러나 연중 지속적인 페소화 환율 상승, 상품수지 적자 심화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 콜롬비아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566억 달러, 월평균수입액의 11.2개월분) 대비 5.6% 감소한 535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7.6개월분)로 악화되었음. 한편, 2022년 말에는 경상수지 적자 폭 감소, FDI 유입액 증가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574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7.2개월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IMF(2022. 5월)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이 최근 수년 간 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대비 100~150% 수준에 꾸준히 머무르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대외적 위험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그림 7] 콜롬비아 FDI 유입액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UNCTAD, EIU. 2022년은 EIU 전망치

[그림 8] IMF 적정 외환보유액 대비 콜롬비아 외환보유액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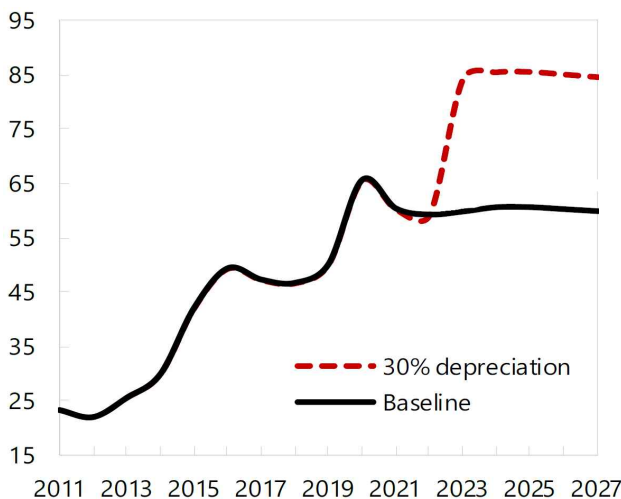
자료: IMF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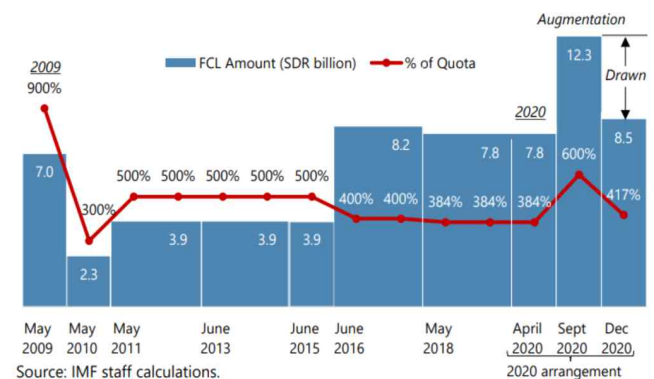
- 콜롬비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및 이에 대응한 정부기업의 외화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대외차입이 증가한 결과 전년(50.2%) 대비 급증한 65.6%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경제성장 회복으로 60.3%로 개선되었음. D.S.R 역시 2021년 총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48.8%) 대비 개선된 39.2%를 기록하였음.
- 2022년에는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5.8%), 상품수출 증가(전년 대비 약 27%)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작용하여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58.1%로, D.S.R은 29.6%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IMF(2022. 4월)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양호한 외환보유액과 안정적인 변동환율제 등을 고려했을 때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향후 관리 가능한(manageable)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 IMF가 최근 실시한 콜롬비아 외채 지속가능성 분석에서는 2022년 중 폐소화의 30% 평가절하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콜롬비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24년 85%로 급등할 것이나 그 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로로 진입할 것이라 추정함.
-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2009년 이후 IMF와 신축적 신용공여 한도(Flexible Credit Line, FCL) 계약을 체결하여 대외지급여력을 제고해 왔음. 이를 통해 2014~16년 원자재 국제 가격 급락,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 등 대외적 충격에 비교적 수월하게 대응하였으며, 2020년 12월에는 회원국 최초로 37.5억 SDR(약 54억 달러) 상당의 FCL 자금을 인출하여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불안을 막을 수 있었음.
- 2022년 4월 29일 콜롬비아는 IMF와 71.5억 SDR(약 98억 달러, 쿼터의 350%) 상당의 FCL 계약을 체결하였음. IMF는 동 한도가 콜롬비아의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 보험이 될 것이라 밝힘.

[그림 9] 콜롬비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IMF

[그림 10] 2009년 이후 콜롬비아 FCL 활용 추이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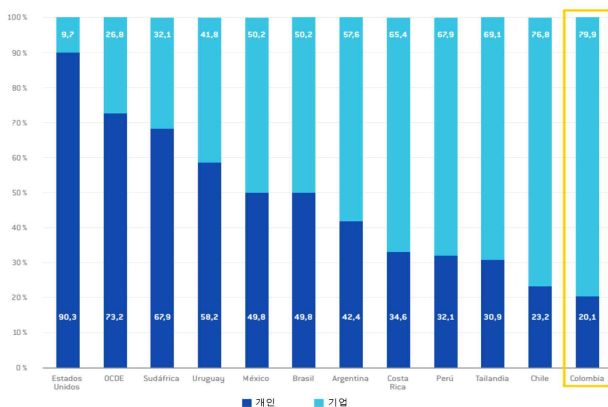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취약한 인프라 등에 따른 수출구조 다변화 난항

- 콜롬비아 경제는 미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로 인해 미국의 거시경제 변화에 민감하며, 최근에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의 상품수입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UN Comtrad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미국(29.0%), 중국(9.0%), 파나마(5.9%), 인도(5.5%), 브라질(5.0%), 에콰도르(4.3%) 등이며, 주요 수입상대국은 중국(25.0%), 미국(24.0%), 멕시코(6.4%), 브라질(5.9%), 독일(3.5%) 등임.
- 또한, 원자재를 비롯한 1차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임.
- UN Comtrad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 연료(46.0%), 귀금속(8.1%), 커피·향신료(7.7%), 플라스틱(4.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제품(10%), 기계류(10%), 자동차(7.9%), 의료용품(6.4%) 등임.
- 이러한 수출상대국과 수출품목의 편중은 제조업 투자 증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의 높은 법인세 의존도, 취약한 교통·도로 인프라 등으로 인해 해소되기 어려워,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4G 및 5G 프로그램 등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성공 여부가 향후 성공적인 수출다각화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OECD 및 콜롬비아 민간경쟁력위원회(CPC)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콜롬비아 기업의 직접세 부담 기여도는 79.9%로 OECD 및 주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함.
- Fitch Solutions(2022. 4월)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위축되었던 교통 인프라 건설은 2022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모멘텀 형성으로 전년 대비 6.7%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4G 및 5G 프로그램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1] 중남미 주요 국가 직접세 부담 기여도(개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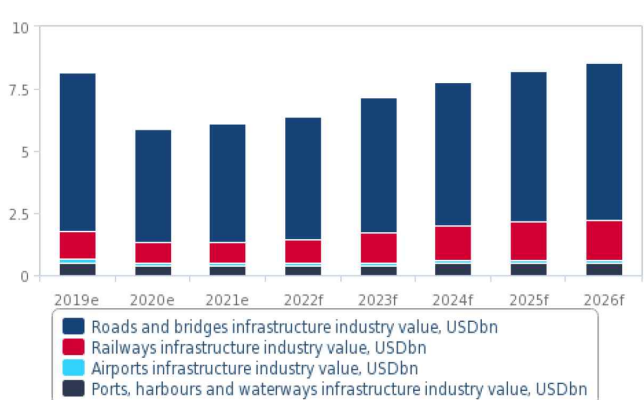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콜롬비아 민간경쟁력위원회(CPC)

[그림 12] 콜롬비아 교통 인프라 부문별 산업가치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DANE, Fitch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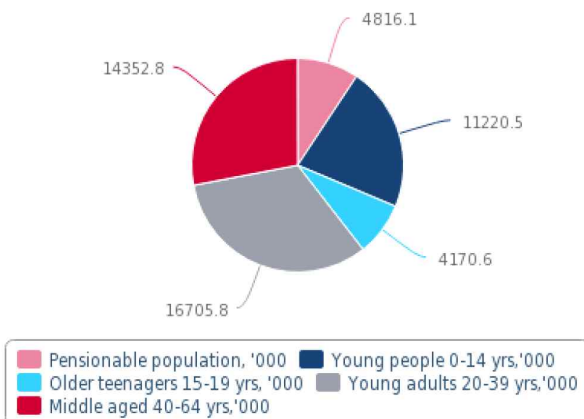
성장잠재력

풍부한 내수시장과 노동시장 보유, 인구구조 변화는 성장잠재력 악화 요인

- 콜롬비아는 원유, 유연탄, 금, 구리, 니켈, 에메랄드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 중 인구 3위 및 GDP 4위의 비교적 큰 내수시장을 확보한 국가임.
- Trade Map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2021년 기준 화훼 수출 세계 2위, 커피 수출 세계 3위, 석탄 수출 세계 7위 및 원유 수출 세계 19위 국가임.
-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편에 속하여 생산가능인구가 많으며(중남미 3위) 남녀 모두 노동참여율이 양호한 편으로, 저숙련노동 공급 측면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전문성이 높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고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막중한 점 등은 취약점으로 꼽힘.
- Fitch Solutions(2022. 4월)에 따르면, 2021년 콜롬비아 총인구 중 '20~39세' 비중이 32.6%로 가장 크며, '19세 이하(30.0%)', '40~64세(28.0%)', '65세 이상(9.4%)' 순으로 뒤를 이음.
- 한편,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콜롬비아 총인구 중 24세 미만 청년 비중이 2009년 46.5%에서 2019년 40%로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2019년 여성 1인당 1.8명으로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였음. 비록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금수급인구(Pensionable Population, 65세 이상)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연금수급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13] 2021년 콜롬비아 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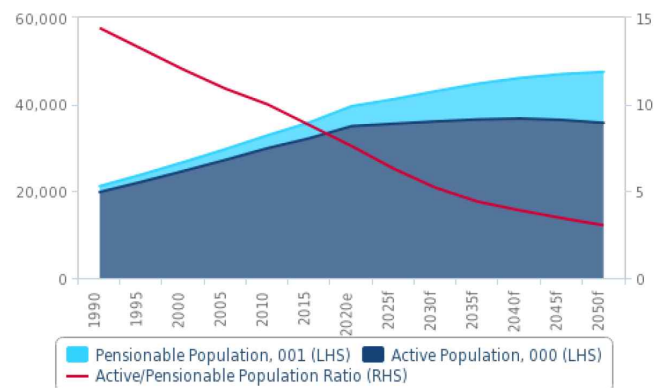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sources, Fitch Solutions

[그림 14] 콜롬비아 경제활동인구(A)·연금수급인구(B)

규모 및 비율(A/B)

(단위: 천 명, %)



자료: UN, Fitch Solutions

정책성과

사회투자법을 통한 세제 개편 추진

- 2021년 4월 15일 두케 행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세율 인상 및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중산층 및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4월 28일부터 전국적인 노조 파업과 반정부 시위를 초래하였음.
- 이에 두케 대통령은 5월 2일 동 개편안을 철회하였으며, 레스트레포 신임 재무장관은 7월 20일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한 사회투자법(Ley de Inversión Social, 세제 개편안 2.0)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동 법안은 9월 9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됨.
- IMF(2022.4월)에 따르면, 사회투자법의 주요 목적은 ①재정적 틀 강화, ②사회보장지출 증대 및 ③세수 확대로, 중기적 관점에서 GDP 대비 약 1%의 재정수지 개선 성과가 기대됨.

사회투자법(2022년부터 적용)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 인하 정책 철회 및 35% 과세(단, 금융기관이 과세소득 UVT 120,000 초과 시 38% 적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오렌지 경제)에 대한 감면 기간 축소(7 → 5년) 등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및 관광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2022. 12. 31까지) • '부가가치세 없는 날' 연중 3일 실시(가정용 전자제품, 장난감, 스포츠 용품 등 대상)
과세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누락 자산에 대해 17% 과세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기업 인건비 보조 차원의 정규 고용 지원 프로그램(PAEF) 기한 연장 • 18~28세 청년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약 59달러 상당의 신규 고용 보조금 지급

자료: Ernst & Young, IMF

※ UVT(Unidad de Valor Tributario): 콜롬비아의 세금 책정 단위로 매년 기준 단위가 달라짐(2022년 UVT 1=38,004페소)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행동법 재가

- 2021년 12월 두케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기후행동법(Ley de Acción Climática)을 재가하였음. 동법에는 2030년까지 ①산림 파괴 전면 중단, ②탄소 배출량 40% 감축, ③온실가스 배출량 51% 감축 등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음.
- 독일 환경평가기관 저먼워치, 기후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 및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2022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세계 61개국 중 25위로 '중간(Medium)'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보임. 온실가스 배출량 51% 감축 추진 등 최근 기후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및 실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정치안정

역사상 최초로 좌파 대통령 당선, 정책 불확실성 심화 우려

- 2022년 6월 19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좌파 연합 '역사적 조약(PH)'의 상원의원이자 게릴라 리더 출신인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前 부카라망가 시장이자 기업인 출신인 무소속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보를 상대로 50.4%를 득표하며 제34대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금번 당선으로 페트로 당선인은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 되며, 그의 러닝메이트였던 인권·환경운동가 프란시아 마르케스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로 부통령직을 맡게 됨.
- EIU(2022. 5월)에 따르면, 페트로 당선인의 인기는 부정부패 및 폭력, 빈곤 등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를 소극적 태도로 다룬 우파 행정부들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임. 또한, 기후 변화, 성차별 등 기성 정당들이 간과해 온 문제들에 대하여 젊은층의 우려가 점차 증가한 점도 페트로 당선인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한편, 앞서 3월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역사적 조약 연합이 상원 108석 중 19석을 확보하였으나, 보수당과 자유당 역시 각각 16석, 15석을 확보함에 따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상황임. 페트로 행정부는 이처럼 극도로 파편화된 정치환경 속에서 강력한 지지기반의 부재로 인해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데 극심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적 불안과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IHS Markit(2022. 6월)에 따르면, 페트로 당선인은 채굴 산업(석유, 석탄 및 광업) 중심의 콜롬비아 산업 구조를 농업·제조업 위주의 생산적 모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채굴 산업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입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또한, 채굴 활동의 중단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채굴 산업에서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구스타보 페트로 당선인의 주요 공약

구분	내용
재정정책	• 고액자산가 및 대지주, 비생산적 토지에 대한 증세, 법인세 면제 폐지
에너지	• 석유 산업의 단계적 해체, 국영 석유기업 Ecopetrol의 주기능을 청정에너지 생산 등으로 전환
교역	•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자국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높은 수입 관세 유지
농업	• 미사용 지방 사유지에 대한 종과세, 각 주(州) 단위로 토지 재분배 정책 실시
국가개입	• 농업, 제조업 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 추진, 연금체계를 국가통제 방식으로 회귀
치안	• ELN 등 불법 무장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 실시, 군경 체계 점검 및 개편
주정부 개편	• 주정부 개편을 위한 긴급조치 실시, 개헌 국회를 통한 주정부 점검
외교	• 베네수엘라와 관계 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중립 유지, 친미 기조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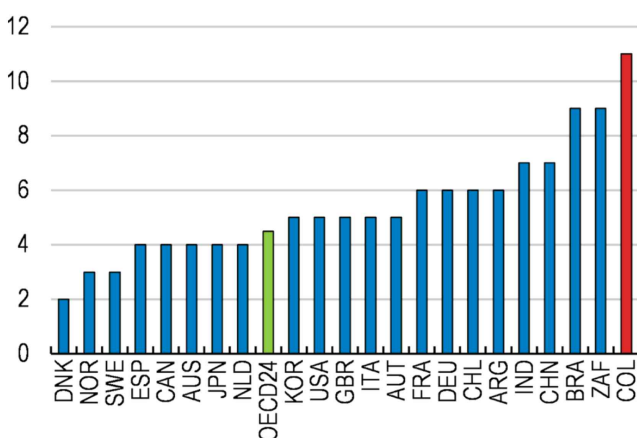
자료: IHS Markit

사회안정

고질적인 빈곤과 불평등에 따른 불만 고조

- OECD(2022. 2월)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 및 불평등, 노동시장 비공식성을 지닌 국가 중 하나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지출의 상당 부분이 비(非)빈곤층에게 제공되고 있음. 또한, 전체 노동자 중 60% 이상이 제도권 바깥의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소득 분포 하위 10% 계층이 평균 소득 계층으로 진입하기까지는 무려 11세대나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됨.
- World Bank에 따르면, 절대 빈곤율(하루 생계비 1.9달러 미만, 2011년 PPP 기준)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빈부격차 확대로 2008년(10.4%) 이후 처음으로 10%를 상회하였으며, 인접국인 에콰도르(6.5%), 페루(4.4%), 브라질(1.7%) 등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빈곤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2019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시위 및 집회는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빈곤 및 불평등에 따른 불만과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가 반영된 결과임.
- IHS Markit(2022. 4월)에 따르면, 2021년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지속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는 증세 중심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촉발되었으나, 본질적으로는 빈곤 및 실업 심화, 경기부양책 요구, 경찰 공권력 남용 등의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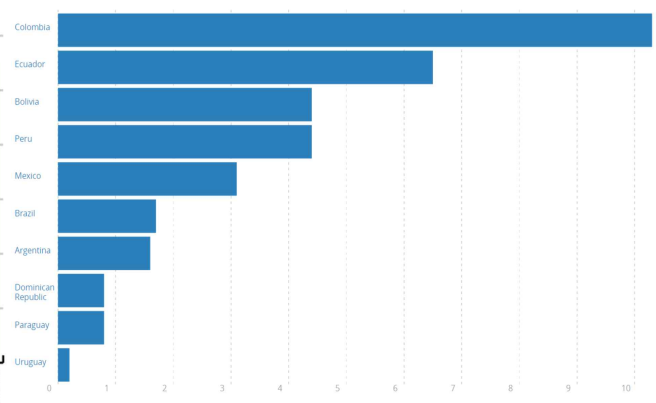
[그림 15] OECD 국가별 소득 분포 하위 10% 계층이 평균 소득 계층으로 진입하기까지 소요되는 세대 수



자료: OECD

[그림 16] 2020년 중남미 주요 국가별 절대 빈곤율

(단위: %)



자료: World Bank. 2011년 PPP 기준 하루 생계비 1.9달러 미만

사회안정

열악한 치안에 따른 사회적 불안 지속

-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2021년 법치주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법치지수는 세계 139개국 중 86위(중남미 32개국 중 19위)를 기록함. 정부 개방성 부문에서 세계 35위(중남미 4위), 규제 집행 부문에서 세계 62위(중남미 12위)를 기록하며 양호한 결과를 보인 반면, 질서 및 안전 부문에서는 세계 126위(중남미 29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무름.
- 콜롬비아 정부는 2016년 당시 최대 반군단체였던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정을 맺었으나, 여전히 FARC 잔당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 2017년에는 좌파 게릴라 무장단체 민족해방군(ELN)과도 평화협상을 개시하였으나, ELN이 보고타의 경찰학교에서 자행한 차량폭탄 테러로 학생 22명이 사망한 뒤 협상이 중단되어 치안 불안은 지속되고 있음.
- 2022년 2월 23일 ELN은 세사르, 산탄데르, 카우카, 나리뇨 및 노르테 데 산탄데르(총 5개 주) 내 인프라 시설에 테러를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음. 이는 표면적으로 콜롬비아의 평화와 평등을 위한 신헌법 제정 추진을 촉구하는 무장 파업이었으나, 실제로는 3월 총선과 5월 대선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테러 전략인 것으로 분석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2022. 4월)는 ESG 요소가 콜롬비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Moody's(2021. 11월)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수 등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석유 수출의 높은 비중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탄소전환위험(Carbon Transition Risk)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지난 20년 간 빈곤 감소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소득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점은 사회적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교육, 주거, 보건 및 안전, 기초서비스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위험이 상존함. FARC와의 평화협정 이행, 베네수엘라 난민의 대거 유입 등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은 재정수지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투자 및 생산성 증대를 견인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법치주의, 부패 통제 등과 연관된 제도적인 틀이 준수한 편이며, 효과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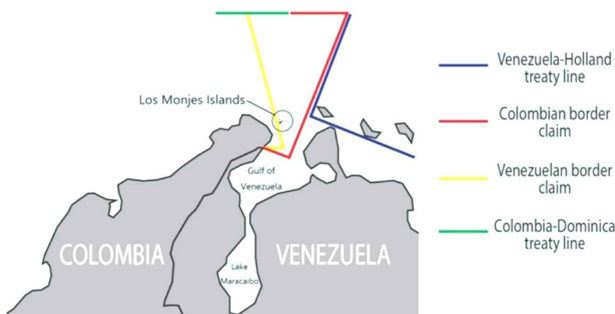
베네수엘라와 국경 재개방 논의 가능성

-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1831년 그란 콜롬비아 해체 이후 로스 몬헤스 군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정국 혼란에 따른 난민 증가, 불법 무장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등으로 갈등을 지속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단절한 상태임.
- 미국은 2019년 마두로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통해 정권을 탈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마두로 행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간주하고 경제 제재를 가해 왔으며, 두케 행정부는 이에 동조해 왔음.
- 이후 콜롬비아는 2021년 12월 중남미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신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는 등 친서방 행보를 보인 반면, 베네수엘라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강력 지지 의사를 표하는 등 친러 행보를 취함에 따라 양국 간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2022년 6월 19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게릴라 출신의 페트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6월 22일 페트로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경 재개방 및 국경지대 거주민 인권 회복을 위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힘. 양국의 교류 재개는 국경지대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관계는 전보다 경색될 전망이다.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 입장 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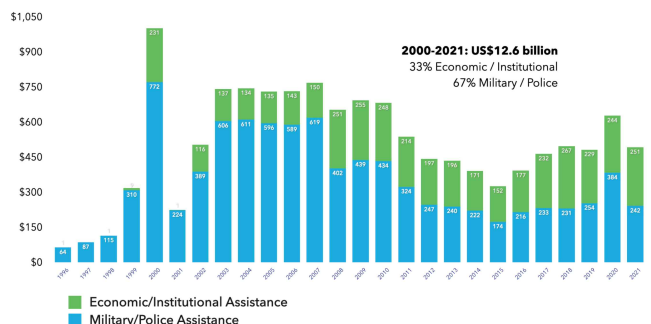
-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외교적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친미·친서방 성향의 콜롬비아는 러시아를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음. 이 같은 반러 기조를 바탕으로 콜롬비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및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예정임.
- Reuters(2022. 5월)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러시아가 전쟁 중 매설한 지뢰의 제거를 지원할 계획임. 이는 미 국방부의 추천에 따른 것으로, 콜롬비아가 지난 60년간 반군과의 무력 충돌 중 사용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장기간 축적해온 점을 높이 산 것임. 한편, 양국 국방부는 장관 회동을 통해 향후 상호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 밝힘.

[그림 17] 콜롬비아-베네수엘라 영토 분쟁(로스 몬헤스 군도)



자료: The Bogota Post, 한국일보

[그림 18] 2000~21년 미국의 대콜롬비아 경제·군사 원조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 국제정책센터(CIP) 안보지원 모니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외채상환태도

중장기 위주의 외채구조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22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콜롬비아에 대한 여신잔액 43.2억 달러(단기 16.9억 달러, 중장기 26.3억 달러) 중 연체액은 116.6백만 달러로 약 2.7%에 불과하며, 총외채의 60.9%가 중장기 외채로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지니고 있음.
- 다만, 이는 전년 동기 기준 연체비율(0.5%) 및 중장기 외채 비중(86.8%)과 비교할 때 다소 악화된 수치로, 외채상환태도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2021.10)	4등급(2020.10)
Moody's	Baa2 (2021.10)	Baa2 (2020.12)
Fitch	BB+ (2022.06)	BB+ (2021.12)

OECD 및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기존 등급 유지

- 콜롬비아는 2006년 이후 OECD 4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자재 국제 가격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 및 상품 생산 둔화 등이 잠재적 등급 하락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변동환율제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수립, 높은 정책 지속성, 양호한 외채상환 실적 등이 콜롬비아의 국제신인도를 견인하고 있으나, 외채상환부담 증가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함.
- Moody's(2022. 4월)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대외적 위험 증가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공적채무 및 재정수지 적자 감축 노력에 따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Fitch(2022. 6월)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식료품 중심의 인플레이션 강세, 순외채잔액 증가 등 신용도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2022년 견조한 성장세, 쌍둥이 적자 개선, 공적채무 안정화 등의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콜롬비아 경제는 미국·중국 등의 경기 회복과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10.6%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2022년에는 민간소비 및 수출 회복으로 5% 이상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6.8%로 코로나19 보건지출 지속에도 경제 상황 개선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7.0%)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 2022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세 지속 등으로 인해 전년(-6.8%) 대비 개선된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6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좌파 게릴라 출신의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무소속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보를 50.4%로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됨. 이는 부정부패, 빈곤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미진하게 대응한 우파 행정부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이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여당의 지지기반 부재로 향후 페트로 행정부의 정책 추진 시 극심한 난항이 예상됨.